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마 22:1-14)

## Those Who are Invited and Those Who are Chosen

(Matt. 22:1-13)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이어 본문에서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대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들은척도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 잔치에 청해서 오라고 초대하라.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혼인을 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그의 신부는 교회를 초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After saying the parable of two sons and the wicked tenants of vineyard, Jesus, in the text, by mentioning the parable of the wedding banquet, points out the mistake of Jewish leaders. A king prepares a wedding banquet and invites people. Nevertheless, most people who are invited do not even listen to it and they do not accept his invitation on the pretext of being busy. However, the king says, “The wedding banquet is ready, but those who are invited did not deserve to come. Go and shout to the street corners, and invite to the banquet to anyone you find.”

The king in the text refers to God the Father, the wedding banquet refers to his son Jesus, and the bride who invites church people refers to Israelites.

### 1. The relation between the familial Israel and spiritual Israel in salvation work

#### 1. 구원의 역사 가운데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관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롬 11:12).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어가야 마땅한 백성들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롬 11:11, 14).

#### 2. 이방인으로서 구원 받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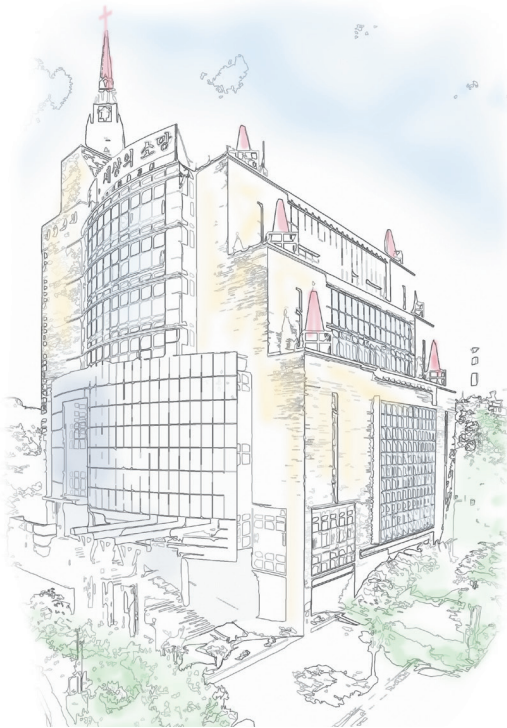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을 보고는 그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14절). 초대 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로 옷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옛 사람의 삶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착하고 옳은 행실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청함을 백성들 중에 택함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신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But if their transgression means riches for the world and for their loss means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greater riches will their fullness bring!” (Rome 11:12)

Even though the Israelites are chosen, and they deserve to continue the work of salvation, they did not obey God’s will, refused Jesus Christ, and despised him. Finally, they crucified Jesus Christ on the cross. Therefore, the salvation became fully needed to give Gentiles.

Nevertheless, God did not completely give up. The Apostle Paul saw that the Gentiles were saved by God and said that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ould confess would really come to them (Rome 11:11, 14).

### 2. As the Gentiles, we who have been saved have to be careful

When he came to notice a guest who came without wearing wedding clothes, the king told his attendants that they should tie him hand and foot and throw him outside (v.14). The wedding clothes that guest should wear, means Jesus Christ. That is right. We who are saved must wear the clothes of Jesus’ grace, the precious blood, and the righteousness.

The fact that we wear Jesus’ clothes means that we should throw out the old life and should be a new person, live our life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and live an abundant and fruitful life.

My beloved Christians,

Though we are the gentiles, thanks to God’s grace, it is we who are invited to Jesus’ wedding banquet. But to be invited does not mean to be saved.

All of us who wear Jesus Christ’s clothes, become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and are invited by our good and right behavior. By being invite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blessed people enjoying the joy of salvation as much as you plea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제37학기 서울성경대학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3월 2일(월)~5월 10일(주) /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 2일(월) ~ 5월 10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요한복음	목, 저녁 7:00~8:00	유문건 목사
	갈라디아서	금, 오전 6:10~7:00	박영준 목사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조원영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3/1~5/3)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3/15~4/12)	서준권 목사	609호
이·미용학교	월, 오전 10:00~12:00 (3/2~5/4)	배경애전도사	701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2/22~6/14)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3/3~4/28)	양세라 목사	601호
영성 케어스쿨	화, 오후 1:30~3:30 (3/3~4/21)	양세라 목사	601호
영유아 아트&하트(art and heart) 스쿨	목, 오전 10:30~12:30 (3/5~5/7)	구본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Biblio Bible) 스쿨	토, 오전 10:00~12:00 (3/7~5/9)	양세라 목사	702호

##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종 목사

### 호산나 찬양대 대원모집

새봄을 맞아 호산나 찬양대(대장:전화진권사)에서는 찬양대를 함께 섬기실 성도를 기다립니다.

수요 1부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는 서울교회 유일의 여성찬양대입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서울음악교실을 이수한 자입니다. 문의는 사무국이나 수요1부예배 후 502호로 오시면 됩니다.

### “발성법” 중심의 서울 음악 교실에 초대합니다

박정선 장로 (찬양위원장)

희망찬 3월1일에 서울음악교실이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드리고 싶은 분 모두 오십시오.

서울음악교실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음악이론 전반에 걸쳐 강의를 합니다. 음악이론 전반에 걸쳐 강의 하며 찬양에 필요한 "악보 읽는 훈련"과 "악보 보고 노래하는 계명창법" 등을 배우고 노래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호흡법"과 "발성법"등을 기초부터 쉽게 배웁니다. 아무런 음악적 기본 실력이 없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서울음악교실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배울수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 합니다. 10주간의 음악 교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하시는 찬양대에 지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찬양드리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위해 음악교실의 문을 활짝 열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순절의 기도

## 주님의 핏방울이 내 몸에 떨어집니다

홍성주 장로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작년에 드린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올해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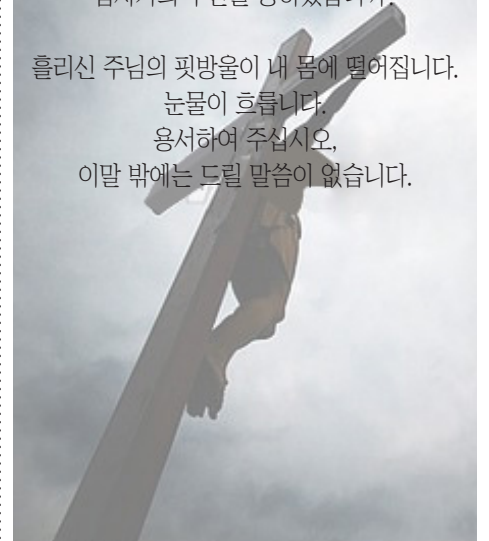
철저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부족하여 새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의 발을 씻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 했습니다. 겹세마네 깊은 밤중에 홀로 고민에 싸여 외로이 기도하시던 주님. 죽게 되신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버린 제자들의 빈자리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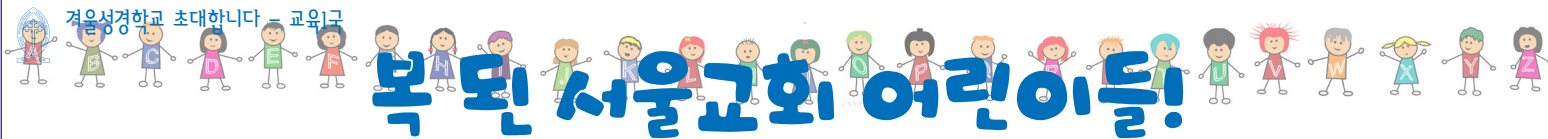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 나는 고통당하시는 주님 곁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죄 없으신 주님이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함을 당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흘리신 주님의 핏방울이 내 몸에 떨어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본혜 전도사 (유아부 지도)

2015년 유아부 겨울성경학교가 '하나님, 저 왔어!' 라는 주제로 2월 27일(금)-28(토) 오전 10:30~오후 1:00에 여러 개의 센터학습의 형태로 진행되고, 3월 1일(주)에는 평소와 같이 주일예배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앙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유아 어린이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유아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서는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집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유아부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어린이들로 변화되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도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세라 목사 (유치부 지도)

이 시기 어린이들은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보면서 비었던 도화지에 믿음의 싹이 그려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자라난 믿음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

해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치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열리는 겨울성경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초로 성경 말씀과 여러 활동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르프(유아음악활동),오감활동, 영어찬양배우기, 미니올림픽, 성경미션 수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2월27일(금)부터 3월 1일(주일)까지 열리는 유치부 성경학교에 여러분과 이웃의 자녀들을 함께 보내주세요.

고수은 전도사 (유년부 지도)

살롬! 서울교회 유년부는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과 궁핍,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교회에 핍박이 없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함과 잘됨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에 충실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아이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현실의 삶으로 치우친 결과 구원의 확신과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더욱 예수님과 구원의 진리를 힘써 전하고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교회 유년부 겨울성경학교에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 2015년 2월 27일(금)~28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서울교회 유년부실(701호)

김광태 집사 (초등부 부장)

2015년도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27일(금)-28일(토)에 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목사님의 설명과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읽어 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조별 미션, 대·소그룹 신체활동, 센터학습, 놀이 활동, 퀴즈 게임, 만들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은 읽은 말씀 내용을 더 잘 새기며, 삶을 위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매 주일과

목요교사기도모임, 전제교사모임을 통해 성경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담임과 센터담당 교사들이 주중에 여러 차례 모여 준비 및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에 초등 4-6학년 친구들이 모두 참가하여, 신앙의 성장과 또래 친구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수련회 초대 - 고등부

#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전준수  
(고등부 회장)



매 주일 9시, 101호에서 100명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101호가 차고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매주 성경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날 때는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외워서 성경적 지식도 풍부한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라는 주제로 아가페타운에

서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여 한명도 다치는 사람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친해져서 고등학생 시절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입시라는 인생의 거대한 첫 관문을 거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권사회 수련회

24일(화) 오전10시-오후1시

2015년 권사회 수련회가 "교회,현대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화)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101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주선애 교수가 선다. 살롬권사회, 제1권사회, 제2권사회 권사회원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 부활절기 시 공모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순절 묵상시, 종려주일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13일,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동 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24일(화) 전국군목수련회에서 특강을 한다.
- 주일식당봉사 : 뱀뱀전도회(2.22) 발립전도회(3.1)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2015 열린 프로그램

# 영성케어스쿨



오치열 장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지고지순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질병과 죽음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오늘도 내일도 같은 날이 올것이라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 바늘로 찌르는 고통 속에서 주님이 데려 가실 날만을 기다리는 중증 환우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호스피스 환우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홀로 눈물지며 애통해 하는 우리 이웃들이 엄연히 바로 옆에 있으나,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그들만의 사정으로 간주하기 쉬운 일상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우리가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수가 70이요 많아야 80이라고 하지요. 100세 시대에 사는 요즘이지만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닌지요. 쏘살같이 세월은 지나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주위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만 중병을 앓고 있는 교우가 약 100여명 되고 년 간 소천하는 교우가 또한 약 100여명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도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건강할 때, 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 안과 밖에서 도고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번에 영성케어스쿨을 새로이 조직하고 중환자를 위한 믿음팀, 호스피스 환우를 위한 소망팀, 사별 가족을 위한 사랑팀을 열기로 하여 금번 3월 열린프로그램을 통한 준비된 봉사자를 모으고자하오니 교우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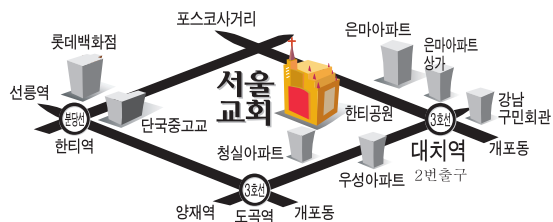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영적 갱신의 절기가 되도록
2. 고등부 겨울수련회(26-28일)와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27-28일)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숙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